

장애아동 사는 곳에서 재활치료 받는다...전국 7곳 시범운영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운영 만성 적자 없도록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 마련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는 전국 7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월29일 밝혔다.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대구 남산병원, 부산 메드빌병원, 울산 아주재활의학과의원, 창원 행복한아이들의원,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천안 다우리재활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이 참여한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5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 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 거주 지역 내 집중적인 재활 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 치료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임원 및 외래 적용)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소아 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을 운영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복지부 정중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지역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소아 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을 운영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복지부 정중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지역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5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 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 거주 지역 내 집중적인 재활 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 치료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임원 및 외래 적용)를 대상으로 한다.

광주 서구 상무2동에 치매안심파크 조성



광주 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인 상무2동에 치매안심파크를 조성하고 지난 9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구 상무2동은 지난해 9월 서구 제1호 “지역애 희망을 담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으며, 이번 치매안심 파크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썬학공원 내에 조성됐다. 치매안심파크는 ▲치매 관련 정보 안내관(3) ▲치매예방 놀이관(3) ▲로고라이트(1) ▲정자 내 치매예방 및 예방체조 안내관(6) ▲대형 트리아트(1) ▲벤치 벽화 및 컬러링(24) ▲입구 그래픽(1) 등 치매 친화적인 시설물들로 구성됐다. 이번 치매안심파크 조성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치매와 관련한 정보와 메시지를 접하고 치매예방에도 관심을 갖는 동시에,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이번 준공식을 토대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및 서구청 밴드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치매안심파크를 홍보할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치매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치매로부터 안전한 마을, 가장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상무2동에 위치한 상가에 배회어르신을 보호하고 관계기관으로 신고해주는 치매지킴이 역할을 부여하는 치매안심프렌즈 지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등 치매안심마을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희기자



곤충 선별 교육 실습.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중증장애인 위한 ‘곤충시료선별사’ 일자리 창출 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

환경당국은 곤충 연구에 필요한 곤충 시료 선별 일자리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곤충시료선별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곤충 시료 선별은 곤충 조사를 위해 수집한 시료 중 곤충만 선별해 종별로 구분하는 작업이다. 곤충은 국내에만 1만6000

여종이 있으며, 보호종, 천적, 해충 등으로 분류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세 기관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곤충 시료 선별을 위한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연구자나 대학생 등 단기 인력이 곤충 선별 작업에 참여했지만, 시료량과 비교해 일손이 부족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원주시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 소속 중증장애인 4명에게 곤충 선별 교육을 시행한 결과 선별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식약처, 시각장애인용 마스크 포장지 개발...이달 내 출시

청각장애인 수어용 투명마스크도 개발 중

국내에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가 개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29일 시각장애인이 마스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마스크 생산업체와 접자나 음성변환용 QR코드가 표시된 포장지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3개 제조업체에서 접자나 QR코드가

표시된 포장지를 시생산하고 있다. 또 입 모양을 보며 의사소통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수어용 투명마스크 개발을 위한 시험생산 및 성능 검토도 진행 중이다. 수어용 투명마스크가 의약품 마스크로 허가 신청될 경우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1개 제조사에서 시험 생산 및 성능 확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30개 지점의 마스크 판매대에 이동식 모니터를 설치해 마스크 구매요령,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 동영상 및 음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